

2002학년도

석사학위(M.Div)청구논문

# 개혁주의 영성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이원재

# 개혁주의 영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리 영 일

이 논문을 목회학 석사학위(M.Div)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이원재



이원재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김세홍 印

審査委員 이영일 印

審査委員 이영일 印

審査委員 원영주 印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2 년 6 월

# 목 차

I. 서 론 .....	1
A.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II. 영성에 대한 정의 .....	4
1. 영성이란 .....	4
2. 기독교 영성의 정의 .....	5
III. 기독교 영성의 역사 .....	7
1. 초대교회의 영성 .....	7
2. 수도원운동 .....	8
3. 중세교회의 영성 .....	12
1) 중세교회 영성의 특징 .....	12
IV. 루터와 칼빈의 영성에 대한 개념 .....	14
V. 개혁주의 전통의 하나님 경험 .....	16
1. 회심의 경험들 .....	21
2. 황홀한 경험들 .....	22
3. 시각적, 청각적 경험들 .....	22
4. 직관적 경험들 .....	23
5. 초월적 경험들 .....	24
6. 성육신적 경험들 .....	24
VI. 개혁주의의 영적인도 .....	28
1. 목회상담 .....	28
2. 영적인도 .....	29
3. 편지쓰기 .....	30
VII. 예수의 개혁영성 .....	32
1. 성육신의 영성 .....	32

1)결핍이 있는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 .....	34
1)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	35
2)기쁨과 평화가 결핍된 곳으로 오신 예수 .....	35
3)약함과 절망하고 있는 곳으로 오신 예수 .....	36
2. 자기 비움의 영성 .....	37
1)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신 예수 .....	38
2)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 .....	40
3. 고난의 영성 .....	42
4. 임마누엘의 영성 .....	45
1)하나님과의 교제 .....	45
<b>VIII.예수의 영성훈련 .....</b>	<b>47</b>
1.기도훈련 .....	47
1)유대인으로서의 예수의 기도 .....	48
2)기도 훈련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	50
2. 말씀훈련 .....	52
3. 교제(나눔)훈련 .....	55
1)예수의 명령으로서의 교제 .....	55
2)성도 상호간 교제의 원리 .....	58
3)섬김의 예배 .....	59
4)참여봉사의 훈련 .....	61
<b>IX. 결 론 .....</b>	<b>61</b>
<b>참고문헌 .....</b>	<b>64</b>

# I. 서 론

## A.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근대사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놀라울 만큼 급속히 성장하여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열강의 침략과 더불어 이 땅에 전래된 복음은 초창기의 극한 박해의 상황에서 신앙의 연단을 겪고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일제침략과 육이오 동족참상을 겪으며 이 민족을 신앙으로 성장시켜 자라고 있었다. 70년대 경제발달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건축하였으며 이 땅의 20%이상의 국민들이 기독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 역사의 큰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의 질적 성장도 함께 성장했냐는 질문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양적인 성장에 맞춰 질적 성장도 평행을 유지해야만 함에도 교회나 목회자 자신의 질적 성장도 양적 팽창에 반비례해 영적인 저하도 가져왔음을 깊이 자성해야한다. 최근의 한국교회 안에는 “영적인 삶”, “영성”, “영성훈련”, “영성신학”이라는 말들이 우리주변에 난립하고 있다. “영성”이라는 접두어를 가진 연구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산재한 현실이다. 어느 단체에서는 위치만 니의 영적인 신령주의를 life에 적용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내면에 잠재한 무속적인 성향과 결합하여 성령의 사역이라고 호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영성의 현실에서 올바른 영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직시하고 이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여 실천해야지 이를 간과할 때에는 다원주의의 혼재가 명확한 시대이다. 영성운동은 시대적 현상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초 군사혁명 이래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를 급격히 가속시켜 발전을 거듭하였다. 국민의 경제생활이 향상되고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와 반대로 우리의 영적 존재인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왜곡으로 물질의 맘몬과 소유의 집착에 몰두하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양심의 마비상태가 발생하여 부정부패도 한 시대의 흐름으로 당연시까지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기독교내에도 물질적 축복주의, 기복적인 신앙, 대형화, 성공제일주의로 전락하여 기독교 신앙은 점차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기독교와 타종교가 혼합한 성서에 없는 한국만의 새로운 기독교 영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영성의 다양한 측면의 논의에서 많은 공통적인 부분들은 21세기가 다원화 시대이며 종교 재생의 시대가 될 것이며,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 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sup>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영성을 말하면 천주교의 전통적인 영성을 의미하고 개혁주의 정통과는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혁주의 자들의 역사적 신학적 전통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또한 교회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해결해야 할 많은 영성의 정립 및 이단화된 영성의 혼재를 바로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오순절 계통의 신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복 신앙적인 점들과 민족정서에 흐르는 유교적 영성, 무속적 영성의 혼재가 참다운 한국 기독교 영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교회에 대표될 만한 보수진영의 교회들에서 영성기도회나 영성수련 영성세미나등 유형적인 쏟아지는 영성의 제 물결에서 앞으로 현대목회에 있어 올바른 영성의 중요성이 차지할 비중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영성의 가장 기본이요 모태인 예수의 영성과 교회시대사적 영성 현대의 헨리나웬이라는 대표적 영성을 지칭하는 영성 신학의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편 개혁신학의

1)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p14,21. 저자는 여기에서 신학 교회가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인본화된 신학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나 초월이나 실존의 깊이 속에서 상징화되는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다. 교회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진보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단체로 변질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교회의 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장로교의 영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올바른 개혁교회의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B. 연구 방법과 범위

시편1:3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의 영성은 예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개혁주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안에서 성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오도하거나 영성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말씀의 근거에서 존재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이 추구할 방향은 다원화된 혼돈된 영적인 시대에서 성서에 입각한 올바른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본 영성관을 정립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 영성이 단순히 이론적 무장으로만 성립되는 않지만 자칫 황폐화된 현대 기독교인의 올바른 개혁주의적 성서적 영성관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별히 21세기 개혁 교회의 영성의 대안으로 칼빈의 영성을 살펴보고 가장 그 근본에서 예수의 영성을 고찰하며 교회사적 흐름을 점검하고 현대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헨리나웬의 영성의 제 방법을 연구 관찰함으로써 개혁교회에 적합한 영성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헨리나웬의 영성은 ‘현실적이 되라’, ‘멋있게 보이라’, ‘힘이 최고다’라는 현실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현실성에 대한 관심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유명해지려고 급급한 현실에서 공동체적이고 상호 사랑을 근본으로한 관계사역에서, 참된 힘의 근원은 예수의 사랑의 헌신된 영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sup>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수의 영성을 기초로 한 루터와 칼빈, 현대의 헨리나웬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2) 헨리 나웬,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출판부역, 1998, P.70

## II. 영성에 대한 정의

### 1. 영성이란?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sup>3)</sup>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내면화시켜서, 소크라테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스토아주의철학자’<sup>4)</sup>들은 스토아주의 영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심청은 ‘효’(孝)라는 정신에 생명을 건 유교적 영성의 한 모범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불교에서 석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곧 석가의 영성이다. 이러한 영성들은 엄격한 자기훈련과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통 영성이란 어떤 선협적인 것,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영적인 속성을 전제로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과 사물에 대한 자세나 방법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성이 하나의 삶의 자세로서 기능적인 수식어처럼 따라 붙기도 한다. 사회 참여적 영성, 해방 영성, 생활영성 등이 그러한 것이다.<sup>6)</sup> 특히 일반적인 영성은 구체적인 어느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요소나 추월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각자 고유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자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

3) 이광희, “영성신학”, 복음주의 실천신학 개론(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3), p.381.

4) 스토아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인간과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정신을 본받아 사는 것을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5) 오성춘, 영성과 목회, -기독교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1997), pp.40-42

6) 소기범, “개혁주의 여성의 특징,”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논문, 1997).p.2

성의 현주소만 달라질 뿐이다.<sup>7)</sup> 영성사전(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에서 그든 웨이크필드(G.S. Wakerfield)는 “영성이란 인간 삶의 활기 또는 생기를 돋우고, 초지각적(supersensible)실체들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는 태도, 믿음, 실천이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캐나다의 신학자인 월터 프린사이프(W.Principe)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인간 삶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확신에 따라 사는 삶의 양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김경제 교수는 “영성이란 다차원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둘러싸고 또한 구성하는 자연, 사회, 동료 인간과 신과의 교통과 만남 속에서 창출해 내는 전인적 생명 약동이요 반응이다”고 말한다.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은 “기독교 영성은 일반적인 형태로든지 특별한 형태로든 지간에 기독교 믿음 안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이다”라고 한다.<sup>8)</sup>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성이라는 명사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형용사로 영적(spiritual)이란 용어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특성을 서술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다. 영적이란 말은 신약에서 교인들의 독특한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였다.<sup>9)</sup>

## 2.기독교 영성의 정의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칼 라너(K. Rahner)는 “영성이란 인간이 창조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초자연적인 생명이며,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던 속사람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여 살아난 은총의 생명으로 성체 성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장, 성숙하는 실체적인 초자연적 불멸적 생명이다”라고 정의하였다.<sup>10)</sup>

현대 카톨릭의 영성신학자인 오먼(J. Aumann)은 “영성”이란 개념은 ‘영’(spiritus)이나 ‘정신’(pneuma)”이라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로서

7) 이영두 “영성신학”(도서출판 임마누엘, 2001), p.22

8)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9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p16

9) 엄세천, 「영성생활」 (서울:기독교한국연수원, 1986), p.17

10) K. Rahner, 「영성신학총론」 정대식역, (서울: 카톨릭출판사, 1983), p.17.



‘신성한 능력, 초자연적 능력’을 뜻하는 말이며, ‘성서적 영적 능력’과 일치하는 말이 된다. 그러나 진정한 ‘참 영성’은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고<sup>11)</sup> 하였다. 홈즈(Urban, T.Holmes)는 영성을 인간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체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하게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시도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영성이란 하나님을 흡족하고 영화롭게 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안에 있는 생명의 특질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sup>12)</sup>고 하였다. 한정애 교수는 기독교의 영성이해는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동태적 현상으로서 자기초월의 능력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제반관계들 속에서 창출해내는 인간성의 생동하는 삶의 체험현상과 그 창조적 힘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성령의 은사체험과 같은 특수 체험에 국한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스타인, 지향성에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가 지으신 세계 한 가운데서의 실존적인 삶 그 자체, 즉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분, 그 분의 아들, 그 분의 영을 통하여 변형되어 가는 인간 정신 일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3)</sup> 고 정의하였다.

박재만 교수는 영성이란 인간이 실천하는 신심 곧 하나님 섬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의 참여이다. 곧 성령의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하며 성부께서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sup>14)</sup>라고 성령에 의한 삶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스도안에서 보존되고 확증되었으며,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참 인간적 삶의 능력”이라<sup>15)</sup>고 영성이 은혜로 주어졌고 은혜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11) Jordann Aumann, op.cit., p.18.

12) Lewis Sperr Chafer, 「신령한 사람」 최지남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p.5.

13) 협성신학연구소편, 「기독교신학과 영성」 (서울:솔로몬, 1995), pp.41-42

14) 박재만, “교회 생활안에서 영성사의 역할”, 「영성연구자료집」 (서울: 카톨릭대학신학부, 1087.1), p.1

15) 한국기독교학회편, 「오늘의 영성신학」 신앙과 신학, 제 4권,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8), p.107

오성춘 교수는 영성이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sup>16)</sup>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볼 때 영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끊임없는 삶의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사는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Ⅲ. 기독교 영성의 역사

#### 1.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마가야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불을 점화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당시의 문명의 최고 발달지인 희랍 로마세계로 확산되었다. 성령에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 하였을 때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이후로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급속히 전파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수의 공생애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sup>17)</sup> 예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요, 이러한 역사적 체험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신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기독교의 순수한 모습이었다. 초대교회 영성의 또 다른 특징은 성례전 중심의 예배에 있었다. 성만찬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초기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일주일 중 첫째 날 떡을 떼기 위하여 회중을 모았다. 이 예배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데 있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초점은 성금요일의 대속의

16) 오성춘, 「영성과 목회」, 장신대출판부, 1989, p.19.

17) 이형기, 세계교회사(상), 한국장로회출판부, 1984, p. 108.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시행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이 새로운 실재의 시작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회집하였다. 그때 이래로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회는 예배의 절정을 성만찬으로 보았다.<sup>18)</sup> 그리스도와의 일체를 위한 새로운 계약의 희생제사인 성만찬에서 영적인 힘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힘과 주님의 실제적인 현존으로 생각되었다.<sup>19)</sup>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 믿는 자들의 무덤에 모였다. 그들이 지하무덤에 모였던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선조들이 매장되어 신앙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론 성도들 간의 연합, 나아가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과의 연합을 소망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성만찬 다름으로 중요한 사건은 세례였다. 당시 성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교인이 되어야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점차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이방인의 숫자가 증가하자 세례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말씀의 선포 후에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던 사도시대의 세례 성사는 ‘복음화’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세례 성사는 예비자 교리가 끝난 후에 죄악으로부터의 해방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던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sup>20)</sup> 성만찬 중심의 예배는 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삶의 증거를 요구하는 세례교육이 있게 하였다. 이것은 성례전 중심의 예배가 주는 초대교회 영성의 또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2.수도원 운동

18) 이형기, 세계교회사(상), 한국장로교출판부, q994. p.216.

19) 방효익, 영성사, 바오로 딸, 1995, p.21

20) 방효익, 영성사, 바오르 딸, p.17,1995

수도원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성되었다. 첫째, 초대교회의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가 세속적, 이교적 교리에 침투 당하여 본질을 훼손당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에 교회의 세속화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욕생활, 경건생활, 도덕적 생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 교회가 거대한 조직적이고 방대한 재산을 소유한 종교단체로 변하여 물질적이며 세상에 권력을 소유한 기관으로 변하자 교회는 영적인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돌파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하였다. 셋째, 동양의 이원론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물질을 떠나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었다. 넷째,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은 전 기독교인에게 구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러한 제 요소들이 수도원 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요인은 초기 기독교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sup>21)</sup>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삶의 패턴은 금욕주의적이었다.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삶의 모형은 박해시대에 들어와서 순교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순교는 금욕주의 삶의 최고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 이래의 박해보다 호혜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순교정신은 퇴색되어 갔다. 완덕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순교정신의 상실로 말미암아 기독교적인 시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순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사막 가운데 위치한 수도원 운동이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위하여 순교의 정신이 수도원적인 정신으로 대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삶으로서의 고독한 삶은 내적인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이 투쟁의 과정은 회심이 동기가 되어 일생생활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 첫 과정의 결과로 내적인 정화를 이루며 점차 이 투쟁이 승화

21) 유헤용, 기독교 영성의 뿌리, 교육목회, 1993년 10월호, p.52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추구하는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절제된 수덕의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추구하며 복음 정신에 따르는 길을 걷는 것이었다. 수도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 당시 수도자들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물론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가족의 한 구성원의 공동체임을 경험하면서 살았다. 수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드러내면서 기도 안에서 욕구의 조절은 물론이요, 무감각의 상태와 내적 평화를 얻었다.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과의 밀접한 일치와 통교를 이루었다. 수도자들의 이상은 예수의 모범을 따라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었다. 기도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노동이었다. 노동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손으로 하는 노동,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뤄지는 지적 노동이 그것이다. 노동은 수도자의 생활에서 자칫 떨어질 수 있는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그리고 희생하기 위해 노동을 했다. 육체의 본능적인 경향들을 조절하고 동정성을 간직하기 위해 단식, 금욕, 철야기도 그리고 여자를 멀리함 등과 같은 수덕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단식과 금욕도 매우 엄격했다. 금욕을 한 이유는 호색적인 자극을 주고 욕정을 억제하려는 무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sup>22)</sup>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수도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사막의 안토니이다. 그는 마 19:21절의 말씀에 감동되어 회심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처분하고 이집트 사막을 그의 영적인 훈련장소로 택했다. 안토니가 사막을 영적 훈련의 장소로 삼은 것은 세상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악마적인 요소, 즉 음란, 탐욕, 분노, 소유욕 등과 정면으로 부딪쳐 투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영적인 투쟁을 통하여 실존적으로 악마로부터 해방을 얻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삶을 체득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사막의 혹독한 영적투쟁을 통하여 악마의 실체를 경험한 영성적인

22) 칼 수소 프랑크, 최형길 역, p39, 은성, 1997

식별의 능력을 소유하는 지혜를 얻었다. 마침내 그는 인간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는 살아있는 영성적인 사람이 되어 그의 영적인 지혜를 얻고 그의 영적 능력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안토니는 은둔 생활 내지 독거 생활을 장려하는 수도자였지 조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서방 수도원의 규범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존 카시안이었다. 카시안은 수도원 제도를 기독교의 이상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세속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보았다. 그는 수도 생활의 목표를 근거리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까운 목표는 마음의 청결이다. 이것은 주로 도덕적인 정화를 의미한다. 특별히 그가 강조한 것은 겸손과 신중함이다. 이 덕이 신적인 삶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데 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의 형태는 사랑과 자비로 넘치는 관상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영성적인 진보를 위하여 성서적인 지식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성서적인 지식이란 4가지 차원의 해석적인 지식을 의미한다.<sup>23)</sup> 문자적인 해석, 도덕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신비적인 해석이다. 문자적인 해석이란 성서가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함을 말하고 도덕적인 해석이란 그 텍스트가 보여주는 도덕적인 교훈을 개인의 믿음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해석이란 그 텍스트의 신학적인 의미를 추적하고 신비적인 해석이란 종말적인 의미에서 성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진리를 논하기 위한 탐구적인 작업이 아니라 기도와 명상을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다. 이는 당시의 수도자들인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잘못된 영적 경험에 치우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카시안의 가르침은 최초의 서방수도원이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범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3) 레미문트 콧체 외 편, 이신건 역, p89, 한국신학연구소, 1995

### 3. 중세교회의 영성

#### 1) 중세교회 영성의 특징

중세기는 고대와 근대의 중간시대라는 역사적 의미가 아닌 새롭고 다양한 변화의 요인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확립했고, 교회의 세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내적으로 풍부한 신앙적, 영성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이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단계이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물론이요, 나쁜 것 가지고 현재까지 전수되어 있는 이 시기는 세속과 교회의 권력 아래 종교와 민족, 언어와 문화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다.<sup>24)</sup> 중세시대의 영성과 신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찾아본다면 인간-그리스도의 중재에 대한 개념의 부족을 인해 부수적인 중재자들에 대한 개념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속화된 교회와 수도원개혁의 일환으로 수도원 개혁운동이 있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클루니(Cluny)개혁운동이다. 이 개혁운동은 원래의 영성 원칙을 가지고 갱신하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후세에 전체 교회갱신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중세기의 중요한 특색은 교회갱신운동이었고 이것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중세기의 중요한 영성운동이었다. 성 버나드(St. Bernard)는 시토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도원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는 12세기 위대한 영성 신학자이며 실천적 지도자로서 기독교 영성사에 있어 '사랑'에 근거한 '사랑-신비주의'를 확립시킨 영성가다. 버나드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어거스틴과 안셀무스의 입장인 신앙과 이성의 협력과 조화(credo ut intelligam,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를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지식에 영성적인 체험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버나드의 신비 사상의 특징은 그 성격이 감각적인 것이다. 신은 단지 이지적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고, 감수되고 그보다 더 감촉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과의 합일에 도달하

24) 칼 수수 프랑크, 최형걸 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p99, 은성, 1997

는 신비적 체험을 영적 결혼(Spiritualel martimounium)이라고 부른다. 보통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주의(Christus mistick)이라고 부른다.<sup>25)</sup> 12세기경부터 동방교회의 승려들과는 다른 양성의 수도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에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과거 수도사들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 후에 교회는 이들로 모나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성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한 이 수도회원들은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중 가운데서 일했기 때문에 탁발수사라고 불리었다. 이들은 탁발승단(Mdndicant Friars)이라 불렀는데 프란치스코회(Franciscans), 도미니코회(Dominicans), 깔멜회(Carmelites), 어거스틴회(Augustins)등이 그들이다. 프란치스코회는 정적이고 도미니코회는 관조적이다.<sup>26)</sup> 걸식 수도단은 과거의 수도생활과는 반대로 새 교단의 이상을 세웠다. 세속을 떠나는 수도생활보다 세속 속에 뚫고 들어가 대중화, 평민화된 포교운동을 하였다. 금욕, 봉쇄로 고독 속에 살면서 어떤 때는 귀족적 권력의 보호를 받는 수도원이 아니라 수도사 개인이 사유재산이 없는 청빈한 삶을 살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단 같은 곳은 수도 단체로는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고 철저한 청빈주의로 나갔다.<sup>27)</sup> 수도원 운동을 통한 영성훈련가 생활은 교회갱신, 사회정화, 구제사업, 교육제도발전, 농축기술개발, 위대한 성인을 배출하는 등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성생활의 승리였다. 이 시기의 종교개혁의 근원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폴 툴리히는 이렇게 말한다. “토마스(1225-1274)의 합리주의는 옥캄(Guillermo Ockham, 1300-1350)의 ‘유명론’(nominalism)에 의해 단순화되게 되었다. 그는 완덕에 이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단순한 규범들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는 유명론적인 고립화에 대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가지게 되었으나 성서에 근거한 객관적인 계시성을 빠뜨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명론과 신비주의는 둘

25) 엄두섭, 「수도생활의 향기」 (서울: 보이스사, 1982), p.718

26) Urban. T. Holmes, op.cit., p68.

27) 엄두섭, op. cit., p.737



다 어느 정도까지는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종교개혁운동은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하려는 운동이었다. 교황의 칙령, 교회의 회칙과 수도원의 규칙에 매인 심령을 풀어주고 성경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자는 운동이었다. 예배의식, 교리, 전통신학, 신비체험, 선행 등으로 구원을 객관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며 그것들은 유한한 것으로 절대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의 영성신학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었다.

개신교의 여성은 루터, 칼빈, 쾰링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개혁운동과 또한 그들의 신학 사상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16세기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운동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순수한 영성적 교회로,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본 동기와 목적은 침체된 기독교 영성을 회복시키려는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이 운동의 특징은 종교적인 부흥이 단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결과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확신이었다.<sup>29)</sup>

개신교의 여성운동은 성서중심이 되었다. 개신교가 성서해석과 설교 중심의 예배 종교가 되어 성서 안에 존재하는 무궁한 영적 보화와 진리의 샘터 속에 개신교 영성신학의 뿌리가 내린 것은 위대한 전환이었다. 개신교 영성의 선봉자이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칼빈의 영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V. 루터와 칼빈의 영성에 관한 개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과 근본 목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Let God be God)였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

28) P. Tillich,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역,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3), p.285

29) R. E. Scribner, 「독일종교개혁」 임도건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p.39.

의 말씀인 성서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내용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모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루터의 영성의 근본은 성서에 입각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루터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원과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성경말씀을 통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자신의 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신앙과 영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근거한 예수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루터의 복음주의 영성은 바로 그의 3대 중심주의, 즉 하나님말씀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리고 십자가 중심주의 영성임을 알 수 있다. 루터의 신학의 핵심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의 신학이란 점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남의 의(alien righteousness)와 '고유한 의'(proper righteousness)가 그것이다. 고유한 의는 우리를 진정한 의로운 자로 되게 하는 의를 말한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 안에 이러한 두 종류의 의를 성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변환받아 참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진정으로 의하는 칭의의 근본정신이며, 바로 여기에 루터의 영성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의 “성령론”안에서 새롭게 태어남(Regeneration)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그는 루터의 이신득의(以信得義)에서 멈추지 않고 성화로 지향하고 있다. 그는 루터가 강조한 칭의에다 성화를 강조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즉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년 곧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심이고, 성화는 성령에 의한 우리 안에서의 계속적인 변혁 작업이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믿음의 이중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의 전 과정에 관련되며, 또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 칭의와 성화가 진행되는 영적 성장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합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는 하나님과의 연합도 불가능하다. 그는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두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으로 보았다. 또한 성화는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칼빈의 영성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며,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과 헌신의 영성이라 말할 수 있겠다.

## V. 개혁주의 전통의 하나님 경험

개혁주의 전통은 그 발단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고도로 이중적인 면을 지녀 왔다. 윌리엄 부르마(William Bouwsma)는 자신이 쓴 칼빈 전기에서, 칼빈은 매우 다른 두 가지 해석들 중 어느 쪽이라도 해석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인물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칼빈이 확고한 원칙들을 고수하는 인물로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정통에 서 있다고 보는 해석이다. “이러한 칼빈에게 기독교는 정적인 정통의 경향을 띠며, 그리스도인이란 특정한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었다.”<sup>30)</sup> 칼빈의 이러한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질서와 합리성을 모든 것 위에 둔다는 결론을 내려왔다. 이들은 모호성에 대한 여지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 스콜라적인 정통을 고안해 냈으며, 모든 인간의 경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그 경험들이 그들의 의식 구조에 맞지 않을 때 그

30) 하워드 L. 라이스저 황성철역 「개혁주의 영성」 기독교문서선교회, P.33. 1995

러했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의 목소리들이 기도와 그리스도인이 삼을 자주 언급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들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제외한 모든 신비의 여지를 거의 남겨 두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의 정통 칼빈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화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지리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정의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겠다는 열망을 거의 붙어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정적인 성품은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강을 파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의 하나님-울고, 신음하고, 질투하며, 인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정적인 묘사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칼빈주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으시며, 종교적 경험이라는 언어에 대해서도 불쾌해 하신다.

칼빈의 전혀 다른 이면은 삶의 역설들을 찬양하며, 모호성을 합리화 하는 것을 거부하며, 믿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환영한다. 부스마는 칼빈은 “또한 경험과 실천이 이론에 우선한다고 말했으며, 개인적인 자유에 대해 아주 관대했다.”고 말한다. 칼빈의 이러한 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역동성을 가지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까지 자라는 평생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칼빈의 이러한 면을 강조하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교리의 정확성보다는 믿음과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형태의 칼빈주의는 덜 경직된 자세 때문에 광범위한 형태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포함해왔다. 여기에는 대륙의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현대의 여성 해방론자들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통주의의 공식들에 저항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그 공식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자유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는 신비적이며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이지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해 왔다.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은 빈번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중세 신비주의의 언어를 빌어 왔다.

개혁주의 전통의 두 형태 모두 칼빈의 한쪽 면이나 다른 쪽 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둘 모두 각자의 입장을 논증하기 위해 칼빈의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유형의 칼빈주의자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주의 전통이란, 종교적 경험에 대해 별 관심이나 관용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칼빈과 개혁주의 전통의 두 번째 면은 최근에 와서 묘사된 것이다.

이 두 맹 다른 해석의 주요 근원은 “지식”이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칼빈은 거듭해서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지식에 관해 글을 썼다. 그는 이러한 두 종류의 지식 사이의 관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들은 그의 신학의 중심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소요리문답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칼빈이 모든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그는 “알다”라는 단어를 훨씬 더 경험적인 측면에서 사용했다. 직접적인 신앙은 신자의 삶 속에 있는 거룩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러한 믿음은 자아의 내적이며 개인적인 개방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한다. 칼빈은 이렇게 선언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깥에 서 계시는 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한 고통과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했으며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했다.”<sup>31)</sup>

많은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그리스도의 근접성(가까이 계심)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즐겨 사용해왔다. 이 표현은 상당히 다른 많은 형태들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독특한 개체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하신다. 한 사람에게 중심이 되는 종교적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한 사람이 옳고 경험치 못한 사람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글 『뉴잉글랜드의 종교 부흥에 관한 소고들』 (Thoughts on the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칼빈주의를, 미국의 대 각성 운동을 가져온 깊고 강한 감정적 형태의 종교적 경험들과 조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가 이어받은 칼빈주의는 엄격하고 경직된 정통주의 형태였다. 그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쉽지 않았고 에드워드와 같은 탁월한 인물이 필요했다. 그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인간 경험들 중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잣대로 삼아 현재 고백되고 경험되는 이러저러한 것을 단지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sup>32)</sup>

인간들 각자의 독특성과 차이점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며 종교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복종하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한 가지 큰 위험이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옳은 것으로 보이는 길을 유일한 길이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또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관련하여,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

31)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1.1. p.537

32) 조나단 에드워드. “Thought on the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 1742,” (New York: Dunning & Spaulding, 1832), p.139

못할 경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러한 경험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고 똑같은 말과 이미지로 그 경험들을 말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 각자의 독특성은 통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부인되며, 사람들은 여기에 순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요구를 받는다. 사람들은 기대되는 종교적 경험들은 하려는 노력에 많은 정열을 쏟아붓는다. 추구하던 목표가 성취되지 못할 때, 무서운 고통이 동반된다. 사람들은 순응하지 모산 데 대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기독교 신안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갖거나 그로부터 떠나버린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후에, 프랭크라우바(Frank Laubach)는 이렇게 주장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이 하늘로 향하는 문들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긴밀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본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절대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의 방법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그 방법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다.”<sup>33)</sup> 라우바의 충고를 따르면,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아닌 어떤 것이 되고자 우리들이 시도하는 자기기만의 고통스런 노력을 상당량 피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감각들이 규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영적 경험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은 것이다. 우리의 경험들이 우주가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인 설명들에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 경험들을 덮어버리거나 억눌러 버리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의 주변의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를 때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독특성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저 순응하려는 지속적이고 힘겨운

---

33) Frank Lsubach. Channels of Spiritual Power(westwood, N. J. : Fleming H. Revell, 1954), p. 95.

노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자신의 종교적 경험들을 인정하기 못하도록 가로막아 왔다. 주저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불편해 할지도 모르며,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믿음도 뒤 따를 것이다. 사람을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 사랑하는 자로부터 제거될 수도 없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계신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색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경험을 이상한 우연의 일치나 정신적인 혼란으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심지어 순간적인 정신 착란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 세계를 뛰어 넘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험을 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의 교제를 모색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하시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방법들은 우리의 기질과 삶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종류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한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그 만남의 순간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다.

**1. 회심의 경험들:** 개신교는 때때로 교회에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회심의 증거를 요구할 정도로 회심의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왔다. 자신들의 회심 경험이 아직도 생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깊고 강한 의식이 남아있다. 청교도들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회심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심은 새롭고 더 깊은 형태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아니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도 아니었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화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해 조금씩 커 가는 삶이며, 회심이란 이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첫 사건이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회심의 경험들이 가지는 문제들 중 하나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회심은 성장 과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끝으로 보일 수 있다.

**2. 황홀한 경험들(Ecstatic Experiences):**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 치유, 예언, 방언 등과 같은 특별히 극적인 경험들이 다른 때보다 더욱 일반적이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잃어버리고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으며, 따라서 특별한 경험을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의 증거로 인식된다. 자신의 은사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경험을 격하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난다. 즉 어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경험들을 했을 때, 그들은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두려움과 불신과 거부의 대상이 된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신앙에 접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때문에, 이들에게는 은사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 필요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감정적 심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그와 같은 경험에 의해 피해를 당하기 특히 쉽다.

**3. 시각적, 청각적 경험들:**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경험의 위험성은, 사람들이 자신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열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섭리로 쉽게 오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러한 경험들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정신적 질병들은 실제와 환상의 경계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참된 방문과 환각을 구별해 내기란 매우 어렵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경고 한다: “마귀는 구원의 모든 작용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위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하고 신적이며, 신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을 위조할 수 있다.”<sup>34)</sup> 자만과 자기기만의 위험성은. 비록 크기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이끌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방법으로 헌신과 희생을 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4. 직관적 경험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순간들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내적 감각을 가지거나, 겉으로는 단지 혼란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일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칼빈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같은 다양한 인간 경험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결합시키며, 오래 전에 들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즐겨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해 낼 수 있는 등 참으로 영혼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민첩성을 가진다. 그리고 많은 믿을 수 없는 것들도 고안해 내는 영혼의 기술과 많은 놀라운 고안품들의 어머니인 영혼의 기술도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인간에게 신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다.”<sup>35)</sup>

다른 모든 신비스러운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음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심지어는 이 “메시지들”에 이끌리어 이성 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34)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p. 158

35) Calvin, 「기독교강요」 I.V, 5, p.57.

**5. 초월적 경험들:**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다. 큰 사고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선물과 그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초월적 세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임재에 대해 우리를 가장 많이 개방해 놓고 수용할 자세를 취해야한다. 또한 이때 우리가 홀로 있을 필요가 있음을 깊게 깨닫고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 삶이 가치를 의미를 정의하는데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

**6. 성육신적인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랑을 실천한 위인들에 대하여 깊은 경외감과 감동을 가질 때 이를 간접적으로나 심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 우리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가 상처를 입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들은 신적인 것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회미해진 믿음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性(성)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중재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마음과 육체라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영성과 성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성과 영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은유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이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는 재 연합과 하나 됨의 필요함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각각의 색깔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기독교 전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영적 경험들이

가지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분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고 그 진위를 판별해 내는데 도움을 준다.

1. 거룩한 것에 대한 경험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일부러 찾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다. 사울이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났다. 모세에게 있어 이러한 사건은 그가 장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러가는 동안에 일어났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활동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그러한 경험들을 만들어 내는 노력들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언제나 우상 숭배의 위험들에 깊은 우려를 표해 왔다. 스스로의 힘으로 특별한 경험들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들은 우상 숭배라는 함정에 빠지기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내야할 절실한 필요성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들을 강화시켜 줄 감각들을 찾기 위해 애쓰게 된다. 특별한 것을 찾아내려는데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범하심 속에 거하심을 간과하게 된다.

2.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는 경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성경기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두려워 말라”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으며, 야곱은 환도 뼈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알았고, 사울은 눈이 멀었다.

사람들이 사랑과 경이와 좋은 느낌이라는 말에 의해서만 묘사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만난 하

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물어야만 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어느 정도의 경외감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들 자신의 수준에서 쉽게 만나질 수 있으며 친구처럼 취급될 수 있는 하나의 편리한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전락한다.”<sup>36)</sup> 하나님의 강한 사랑은 결코 편안한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며 언제나 내적인 평안에 대한 의식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불편한 경험 양쪽 모두를 포함한다.

3.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언제나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그 요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성취하도록 요구할 때가 많다. 꿈무늬를 빼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에서 해방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바로에게 보내진다. 이사야는 그에게 개인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 명약관하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는다. 사울에게는 그가 반대했고 또 멀해 버리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믿음의 사도가 되라는 요구가 주어진다.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취하고 변화를 이루면 무엇인가 귀한 것을 버리라는 요구가 주어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경험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현재 생활만을 확증해 준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험과는 아주 다른 것이 분명하다. 선견자는 하늘의 환상에 순종해야 할 특별한 의미가 부가되며, 순종은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훈련과 계속적인 도덕적 훈련의 문제이다.“<sup>37)</sup>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만, 그 사랑은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더 넓은 관심의 도구로 만들어야 할 사랑이다. 종교적 경험에 대한 다른 어떤 평가 기준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왜곡되거나 사용 될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선언했다.”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

---

36)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trans. William Pringle(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kng Co., 1949). Luke 1:20, vol. 1. p/34

37) Emil Herman, The Meaning and Value of Mysticism(New York: George H. Doran, 1925), p.37

식은 순종에서 나온다.“ 38)

4.우리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영적 경험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자신의 경험에 대한 인도와 분별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잘못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스스로 행하는 자기 분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과 그들이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미든 것을 구별하는 데 실패해 왔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를 충분히 신뢰함으로써 경험을 서로 나누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의 사귄을 가져야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그 문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의해 열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발견은 훨씬 부드럽고 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이에게는 우리는 그 이유를 판단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발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며, 만사가 합리적으로 잘 되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자신들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복을 받는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발견하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라지지 않은 사랑, 즉 우리 모두의 힘과 희망의 근거가 되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sup>39)</sup>

---

38) Calvin, 「기독교강요」, 1.VI, 2, p.72.

39) 하워드 L. 라이스 저 「개혁주의 영성」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56)

## VI. 개혁주의의 영적인도

### 1. 목회상담.

목회상담은 성직자이건 아니건 간에 내적 갈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 어려운 관계 문제들,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교회를 대표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를 직시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거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회 상담은 서로 다른 문화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어 왔다. 때때로 목회 상담은 전적으로 성직자의 사역에 속하였다. 다른 시대에 있어서 이 사역이 믿음의 공동체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장로의 직무는 목회적 보살핌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을 배가하여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왔다.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인 박스터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다가설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들의 의심을 해결하고, 그들의 죄를 극복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서 행할 바를 알며, 지식과 모든 구원의 은혜에서 커가기 위해 목회자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러한 네 가지 필요들은 청교도 목회 상담의 기초를 암시해준다. 청교도 목회 상담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한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며, 믿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모든 것을 획일적이고 무 감각적이며 인성을 무시한 잔인하고 독선적인 것으로 단정 지어 비난한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과학 이전에 존재했던 목회 상담 방법들이 많은 목표를 가지

---

40) Richard Baxter. *The Reformed Pastor*(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1860).p.346

고 성과를 도출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방법들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삶의 절망과 좌절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것들은 복음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1930년 이후에, 매사추세츠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목회자 훈련을 위한 임상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현대 목회 상담이 신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안톤보이젠(Aanton Boisen), 웨인 오테츠(Wayne Oates)와 같은 학자들이 새로운 심리학의 통찰력을 목회적 보살핌(pastoral care)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한 선구자들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목회상담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목회 상담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것은 문제해결에 관한 노력을 줄이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목회자들이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복잡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목회 상담의 실천을 인간화시켰다. 그러나 목회상담학의 특수한 교육을 받은 목회자에게로 집중시키므로 “적절히”훈련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회의 다른 구성원이 상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켰다.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보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심리학적 목회 상담학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결핍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그들에게 영적 투쟁을 돕고, 그들의 종교적 경험들을 분별해 줄 수 있으며, 더 낫은 기도를 모색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도와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왔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두려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들에게 고대의 영적인 인도는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있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 2. 영적인도



영적 상담이나 영적인도의 역사는 길다. 영적상담의 실질적인 역할은 사도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회심자 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자신을 그들의 신앙의 아버지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디모데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개인과 전체 회중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며 그들을 인도하고자 노력했음을 서신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3세기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영적 인도자나 감독에게 드러내는 일이 일반화 되었다. 4세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의 은둔자를 찾아 영적 지도를 받았으며, “감독”은 기도에 관한 조언을 주며, 적절한 회개에 수반되는 행동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또한 특징으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감독들”중 많은 수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평신도들보다는 수도원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 일부 부자와 권력층에서는 이들을 개인적인 영적 안내자로 찾기까지 하였다. 개신교도들이 영적생활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도자를 찾는 일을 천주교도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낮은 편이다. 이는 개신교도에게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 가지는 중심적인 중요성에 있다. 개신교에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 인도는 많은 개혁주의 개신교도들에게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한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되었다. 19세기 영국의 청교도운동은 풀뿌리 운동이었기에 목회자들은 영적 인도의 중심인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신앙의 동료들에게서 영적인도에 관한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 3. 편지쓰기

종교개혁 시대에서 사람들은 가까이에 목회자나 인도자를 찾기 어렵

기 때문에 영적인도의 일반적인 한 형태로 편지쓰기를 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칼빈은 목회적 보살핌의 상당부분을 편지쓰기를 통해서 수행했다. 칼빈은 또한 편지를 사진을 위한 영적 인도를 발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다. 칼빈은 뛰어난 설교가며 주석가로 행정가로 능력을 발휘했으나, 칼빈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목회적 보살핌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인 사무엘 루더포드(Samuel Rutherford)는 영적 상담에 대한 편지들을 썼다. 편지들 속에서 그는 때대로 아주 직설적인 충고를 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의심의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더욱 엄격하였다. 루더포드의 가장 분명하게 조언하는 형태는 개괄적인 기도의 형태를 띠었다. 그리고 이것을 그가 스스로에 대해 부족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요구였다.

1. 많은 적든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2.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적어도 한 두 마디의 통성기도와 함께 죄, 죽음, 심판 그리고 영원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라.

3. 개인기도시 마음이 산란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4. 기도 후 어떤 기쁨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화내지 말라.

5. 주일날, 온종일 개인예배나 공적예배를 드려라.

6. 말씀을 지키고, 방황과 게으른 생각들을 피하며, 갑작스런 분노와 복수심. 심지어 진리에 대한 억압과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욕망을 뒤섞기 때문이다.

7. 양심에 반하는, 알려지고 발견되고, 드러난 죄들을 마음을 굳게 하는 가장 위협스러운 것들로 알고 피할 수 있도록 하라.

8. 사람들을 대할 때, 계약과 거래에서 믿음과 진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sup>41)</sup>

## VII. 예수의 개혁 영성

예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시발점이며 최종 목적지이다.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의 삶의 자취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최고의 선인 것이다. 예수의 삶의 모든 행적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뿐만 아니라 모든 영성가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 우리가 연구하는 예수의 영성은 주일예배의 초점이거나 신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에 우편에만 앉아계신 거룩한 인물에만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복음서에서의 예수의 모습은 현존하는 신성을 지닌 인간이시요, 영적인 구도자이며, 지혜로운 교사, 스승이며 기도자요 중보자이며, 치료자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부분은 ‘예수의 영성적 삶이 개혁주의 영성신앙의 근본임을 확인’하는데 있다. 우리는 예수의 삶에 대한 탐구를 성서에 근거를 두고 그의 전 생애를 흐르는 영성의 근본을 고찰하며 예수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즉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만났으며, 그것을 어떠한 양식으로 적용하였는지 살핀 후에 예수의 생애가 참된 개혁의 영성의 표본임을 밝히고자 한다.

### 1. 성육신(Incarnation)의 영성

요한은 세상을 어두움으로 비유하고 있다.(요 1:15), 질병의 어두움(요 4:46-54, 5:1-9), 신체의 결함으로 인한 어두움(요 9:1-12), 죄악된 가정 파탄의 어두움(요 4:1-30), 결핍의 어두움(요 2:1-11)등 갖가지 형태의 어두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결핍과 저주와 절망을 만들어주고 있다.<sup>42)</sup>

하지만 어두움은 어두움일 뿐 어두움을 인간은 물리칠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두움을

41) Rutherford, *Letters*. p.293

42) 오성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한가운데」, p162. 월간목회, 1997.5.

뚫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그 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생명 그 자체이시며(요 1:1-4),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육신(Incarnation)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며(요1:5,9) 그 빛은 어두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시다.<sup>43)</sup>

요한은 로고스(말씀)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요 어둠의 세상을 비치는 빛이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언한다.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다.(요 1:5)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으나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분은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넘치게 하시려고 들어오셨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어두움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선지는 이렇게 예언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사 9:2)

결국 예수의 성육신(Incarnation)의 영성은 하나님(말씀)이 인간이 되신 영성이며 하나님(말씀)이 인간을 찾아온 영성이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동참하신 영성이며 말씀이 인간을 구원한 영성이다. 예수의 영성은 어두움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영성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생명이 시들어가는 곳에, 기쁨과 평화가 결핍된 소외된 곳으로 질병의 고난이 있는 곳으로, 사탄의 포로가 된 인간에게, 무너진 가정과 사회, 죄의 포로가 된 자의 친구로 사랑과 정의의 평화

---

43) Ibid

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요1:12),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다.(요3;16)

이것이 바로 성육신(Incarnation)의 영성이며,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에게’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임하는 성육신의 영성의 방향이며 목적이다. 구체적인 성육신의 영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결핍이 있는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

예수님은 결핍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들을 불러 풍성한 생수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 그리고 이 생수는 성령의 생수로, 기쁨과 평강의 생수로(갈 5:22) 새로운 창조와 은혜의 생수이다.(겔 47장)<sup>44)</sup>

결핍이 있는 자를 부르시고 결핍이 있는 곳에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는 선한목자가 되셔서 시들어가는 양들의 생명을 풍성히 채우시고-생명의 영성, 기쁨과 평화가 결핍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희락과 사랑, 평화를 채우시며-기쁨(평화)의 영성,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 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곳에 치유의 능력-능력의 영성으로 채우신다.

#### **1)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신 목자로 비유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

44) 오성춘, 「신학 영성 목회」, pp194-195.,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sup>45)</sup>

이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요 10:14)로 오셔서 말씀하신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생명이 없는 아골 골짜기,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죽음의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며(요1:14)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요7:38-39),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3:16) 오신 하나님이시다.<sup>46)</sup>

## 2) 기쁨과 평화가 결핍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신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라 곤란한 형편에 빠진 것을 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서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지시하신다.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하객들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기뻐한다. 혼인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모라라 근심과 원망에 빠져가건 혼인 잔치는 예수의 등장으로 이전 보다 더 넘치는 풍성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의 자리로 바뀌었다.

---

45) Ibid, p196

46) IBID, PP196-197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평화가 결핍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잔치 집에서 쫓겨난 버림받은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sup>47)</sup>

### 3) 약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곳에 오신 예수

예수님은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불신과 외로움의 땅, 버림받은 곳, 베테스다에도 성육신하신다. (요5:1-9) 그중에서도 38년간을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베테스다에 누워있었지만 도와줄 이웃이 없는 사람, 자기에게도 힘이 없고, 이웃의 도움도 없는 소외된 사람 자신을 저주하며 죽을 힘조차 없는 가엾은 사람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 오셨다.<sup>48)</sup>

고난과 저주와 절망의 땅인 애굽에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낮고 낮은 베테스다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리고 약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요5:8)고 하신다.

‘빛이 있으라’(창1:3) 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말씀이 베테스다에 성육신하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5:8)하심으로 무기력과 약함을 능력으로 채우사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요5:9)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이미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으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영성이 있었다.<sup>49)</sup>

47) 오성춘, 「베테스다의 기적」, P 141., 월간목회, 1998. 7

48) 오성춘, 「베테스다의 기적」, p141. 월간목회, 1998. 7.

49) Ibid, p152.

## 2. 자기비움(Kenosis)의 영성

예수의 삶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빌 2:5-6)를 입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어(empty)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마굿간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의 마굿간은 예수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종이 되심을 상징한다. 마굿간은 낮아지신 예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 오신 예수를 증거 한다.

마굿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마굿간을 선택하여 그곳에 오셨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저 빈천한 마굿간이 변하여 하나님의 성지가 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굿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마굿간에 오셨을 때 그곳은 성전이 되고 찬송하는 예배당이 되며 별이 머무는 성지가 되었다. 들에 양치는 목동이 찾아왔으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그곳에서 경배했으며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별이 예수께서 누우신 곳 그곳에서 머물렀다. 더럽고 냄새나는 마굿간은 별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저 낮고 천한 마굿간은 하늘의 빛난 별이 비취는 영광의 장소로 변화되었다. 예수께서는 빈천한 마굿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채우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방향이다.

예수님의 눈은 낮은 곳으로 향하신다. 예수님의 발은 낮은 곳을 향해 걸으신다. 그것은 바로 그 낮은 곳을 높이하고자 함이요, 그 낮은 곳을 하



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장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sup>50)</sup>

### (1)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신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출발점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빌 2:6-7)것 이었다.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과 권능의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히 버리고 낚새나고 더럽고 천한 마굿간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곧 자기를 버리는 삶의 시작이요, 비움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다른 모든 말씀보다 먼저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과 복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모든 것보다 본래의 삶의 자리, 곧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뜻은 이제까지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떠나라는 것이요, 버림의 사명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사명임을 시사한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40년간을 지켜오던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삶을 버리고 애굽에 있는 고난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야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자기의 본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삶을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더 이상 드

---

50)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pp103-104., 성지출판사, 1992

고아의 조용한 목자의 삶을 지속할 수 없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강권하여 선지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부자청년의 사건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어 예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인간이었다. 그가 예수님께 영생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리라”(마19:21)하는 것이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재물과 지위와 영광과 특권 등 엄청난 세상의 보화를 갖고 있을 지라도 그것을 먼저 포기하여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사도바울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대단한 과거의 삶의 특권과 명예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그리스도를 좃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버림의 표상이 바로 예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림의 삶의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버림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포기했고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의 삶을 버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바울은 과거의 인간적인 부와 특권을 버렸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신 분이시다. 놀라운 영광과 권능, 거룩하심과 존귀를 버리시고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버리신 분이시다. 그분은 버리심으로 얻으셨고, 버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6: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

## (2)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종의 본체이심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분명한 종이셨다.

예수님은 종으로 태어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종의 일생을 살으셨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저녁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눅22:24-27)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면서 섬기는 한 인간임을 강조하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 주관자들과 같은 권세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포기하고 종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막 10:42-44)

또한 예수님은 친히 종의 모델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2-14)고 말씀하셨다.<sup>51)</sup>

### (3)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의 본을 보여준 예수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섬기며 순종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하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종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자들에게 수난을 받아야함을 예고하셨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눅9:22)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10:11,17-18)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철저한 종의 삶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의 판결에도 순종하며 어린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종의 직이 스스로 선택한 섬김이요 순종인 것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종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

51) 오성춘, 「영성과 목회」, p. 114, 장신대출판부, 1995.

하여 필수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스스로 선택 하셨다.<sup>52)</sup> 그분은 성육신과 낮아지심과 평생의 섬김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흘려 언덕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비우셨다.

### 3. 고난의 영성

예수님의 고난은 섬기는 종이 가야할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요5:1-8)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용서하고 새삶을 살게한 사건(요8:1-11)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거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여 고쳐준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중대한 위협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소자를 섬기는 일을 방관할 수 없어 공회를 소집하여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11:47-54) 옳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구약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의 뜻은 분명해졌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6) 그분의 길은 중풍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고쳐, 그 사람을 온전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고쳐주

---

52) Ibid, pp117-123.

셨고 예수님 자신은 핍박을 당하여 고난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간음한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대가로 자신은 죽음의 위기에 빠지셨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죽음을 당하셨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세리와 동행하여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수군거리며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고 예수님을 공격하였다.(막 2:13-17)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헤롯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막 3:1-6)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와 반대와 핍박을 예상하면서도 작은 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2:17)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소자를 섬기며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핍박할 지라도 그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53)</sup>

예수님 자신도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과 섬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러 번 강조한다.(막10:42-45, 요13:12-17, 눅22:34-37) 그리고 그는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여 걸어간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막3:1-6)은 예수님께서 이미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여 고난이라도 불사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송사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

53) Ibid, p124

관념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그를 고쳐주면 이것을 빌미로 송사하여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미 파악하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고쳐주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보시고 근심하시면서 노하셨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예수께서는 손마른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손을 네밀라!” (막3:5) 그가 내밀매 그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곧 나가서 헤롯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sup>54)</sup>

예수님의 영성은 고난을 향하여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고난 속으로 걸어가는 영성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과 섬김의 길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러 번 강조한다.(막10:42-45, 요13:12-17, 눅22:34-37)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면 섬기기 위한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섬기는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sup>55)</sup>

## 4. 임마누엘의 영성

### (1)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측면은 하나님과의 하나됨(union

---

54) Ibid, pp 124-125.

55) Ibid, p 126.

with God)을 완전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 하나됨의 특징은 예수의 특징적인 어법인 “아바(Abba)와<sup>56)</sup>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에 배어있다.<sup>57)</sup>

이 용어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예레미야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이 용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아람어로서 예수이외에 그 누구고 이 용어를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의 사용으로 이 용법은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롬 8:14, 갈4:6)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이라 하여 이름대신에 “주”(Adonai)를 사용했으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경건의 표현처럼 되어 있던 상황에서 예수가 이토록 친밀한 언어를 파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58)</sup>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요 14:7)거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요 10:15)라는 요한적인 표현들은 그 역사성에 있어서 다소 의심을 받기는 하지만 전승 속에 퍼져있는 그 깊은 뿌리를 생각한다면 역사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요한의 기독교론과 하나님과 자신의 일체성을 강조한 전승의 배후에는 예수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성, 연합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하나됨은 공관복음서에서도 자주 표현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11:27)

---

56) 성종현, 「신약총론」, p147, 장신대출판부, 1994.

57) 김영봉, 「예수의 영성」, 기독교 신학과 영성, p110, 도서출판 솔로몬, 1995

58) Ibid, p 100.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눅10:22)

여기서 예수는 자신의 특별한 아들 됨과 아버지와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오는 능력과 지혜의 전이를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자신의 행동이 곧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라는 등식을 거듭 천명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이니라”(마 10:40, 막9:37, 눅10:16, 요13:20)

물론 이 말씀의 요점은 보냄 받은 자와 보낸 자 사이의 일체성에 있지만 영성적 하나 됨의 확신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적대자들이 이를 비방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두목이라고 믿었는데 예수가 바로 그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의 축귀행위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마12:28, 눅11:20)<sup>59)</sup>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는 그의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다는 뜻이다.

예수의 권위적인 죄 사유 선언도 역시 하나님과의 하나 됨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거의 모든 치유 사역에 있어서 예수는 권위적인 말씀만을 사용한다. 이 행동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도 말씀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59) 성종현, 「신약총론」, p.470., 장신대출판부, 1994.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하나님만이 전유물로 여겼던 죄 사함의 권위를 예수가 거침없이 선언했다는 것이다.(마 9:1-8, 막2:1-12, 눅 5:17-26)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하나 됨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sup>60)</sup>

이와 같이 예수의 자의식과 행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성, 즉 임마누엘 교제의 영성이 충만하였다.

## VIII. 예수의 영성훈련

### 1. 기도훈련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모범을 보인 인물이 예수이다.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자리인 동시에 예수의 기도자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기도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함에 있어서 그의 모든 언어와 사고를 묶는 해석학적 기초와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예수의 기도하는 영성이라 명명하고자 한다.<sup>61)</sup>

#### (1) 유대인으로서의 예수의 기도

예수 당시 유대교는 매일 세 번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아침과 오후, 그리고 저녁 예배였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후 3시(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행3:1)가 나온다.

이는 예수 시대에 이러한 기도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바로 오후 제물을 드리는 유대교의 기도시간인 것이다. (스9:5, 시141:2, 단9:21, 행

60) 김영봉, 「예수의 영성」, 기독교 신학과 영성, pp110-113, 도서출판 솔로몬, 1995.

61) 김지철, 「예수의 기도」, p133, 장신논단, 1993.9.

3:1)

유대주의에서 매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침, 오후, 저녁기도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한번의 예배가 추가되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저녁기도는 안식일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기도를 통해서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w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단6:11) 이는 주전 2세기 이전에 이미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기도가 확정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시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시55: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라..

특히 유대교는 삶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배에 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상징적인 행동들과 물건들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허리 숙임, 무릎 꿇기, 토라 두루마리, 포도주, 촛대, 향료 등이다.

예배에서 쉘마(신6:4-9, 민 15:37-41)와 그에 따른 찬양, 그리고 테필라(기도:입기도 또는 18기도문)가 행해졌다. 테필라 기도는 쉘마에 이어 행해진다. 쉘마는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으로 쉘마를 읽는 것은 아침과 저녁예배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신앙고백이란 계속적인 찬양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율법의 계시자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인 행위였다. 테필라 기도는 쉘마에 이어 행해진다. 테필라는 18 축복문으로 되어있으며 이 기도를 회당에서 서서 드렸기 때문에 입기도(Amida)라고도 한다.

안식일에는 특별히 18기도문 전체가 드려지기 보다는 짧은 형태의 7 기도문이 드려졌다. 처음 세 개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고 이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의 축복기도문이 포함된 7개의 기도문이다.

유대교에는 당시 이러한 정규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식사 전후에 식사를 위한 감사기도도 드려졌다, 이 외에도 기쁘고 슬픈 사건이 있을 때 즉 할례, 결혼, 장례 시에도 기도는 드려졌다.

예수는 이렇듯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의 관습에 깊이 젖어든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라났고 그 속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예수는 경건한 유대가정에서 양육되었다 (눅2:41,4:16) 어릴 때부터 유대 종교적 백성들 가운데서 '규례를 따라' 안식일 회당에 참석하여 회중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장했던 것이다. 유태인 부모를 따라 유대적 예배와 더불어 기도관습과 태도를 지켰을 것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의 식탁에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그것을 말해준다. (오병이어, 최후의 만찬이야기, 엠마오이야기)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물려받은 신앙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이 (막1:21, 눅4:31, 막6:2, 막13:54, 눅4:16, 13:10) 이를 더욱 분명히 말해 준다. 예수가 가르친 주기도문이 당시의 기도문인 18기도문과 설교 후에 영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예수가 유대주의적인 종교관습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다. 오후 기도시간에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허세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는 강력하게 비판했으며(마6:5-6) 또한 빈말을 거듭하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내었기(마 6:7-8) 때문이다. 예수는 단순히 의무적인 기도에 대한 습관의 오용을 비판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결코 그들의 기도습관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는 또한 유대인의 식탁 기도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베풀면서 먼저 떡에 대한 감사의 사례를 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준다. 그리고 포도주와 다른 식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찬양한다.

더욱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성전 안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이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막11:17)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아 예수 성전에서도 다른 유대인처럼 기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기도의 교사이신 예수

예수는 스스로 행동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 (마7:7, 눅11:9) 예수는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곤 했다. (막 1:35, 눅 5:16) 그것은 단순한 도피나 쉽이 아니었다.

사람의 환호나 제자들의 뒤따름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면담이 기도임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막14:2-42)에 전형적인 형태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예수는 친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기도의 본보기를 제자들에게 제시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마6:5 눅 11:1-4) 마태에 의하면 위선자와 같이 자기 자랑이나 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의미없는 말들을 주문처럼 외우는 이방인들의 헛된 기도에 대해 말씀한 후 예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는 그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로 가득 차 있다. 예수는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기도를 고독하게 행한 적도 있다.(막1:35, 눅 6:12)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부터(눅3:21) 시작된 그의 기도는 가버나움에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 수행을 위한 기적을 행한 후에도 (막1:35, 눅5:16, 막6:46, 마14:23) 또한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눅6: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도 (마9:38) 계속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와 (눅9:18) 변화산에서 (눅9:28), 수난 받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눅22:32, 요17장) 기도를 쉬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드디어 예수는 수난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마26:36-46)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막15:34, 눅23:34, 23:46)에 이르러서까지 기도했던 것이다. 예수의 기도는 때와 장소가 다르 없었던 것이다.

기도는 예수에게 있어서 하늘의 세계와 접촉하고 만나는 자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 세계를 구체적인 지상세계의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였다. 즉 예수의 기도는 그 자신을 지상의 자리에서 하늘 세계의 자리로 위치를 이동하는 동시에 하늘의 세계를 지상에서 가능케 하는 능력이었던 것이다. 예수의 기는 하나님의 현존을 실체화시키며 그 실체화를 가능케 하며<sup>62)</sup>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둠에 처한 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으며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을 이루었다.

특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원하는 바를 간구하여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따르고자 하는 기도이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맞추고자 한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요14:10, 5:19)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어느 것보다도 더욱 어렵고 수치스럽고 무거운 것이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탄과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었다. 사탄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예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생명

---

62) 오성춘. 「영성과 목회」, pp 364-365., 장신대출판부, 1965

을 건기도, 피와 땀이 섞인 생명의 진액이 다하도록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의 길은 삶이었으며 낮은 곳으로 임하는 방법이었으며 순종과 자기 비움의 교제의 훈련이었다. 이는 고난으로 향하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다.

## 2. 말씀훈련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유혹을 받았을 때(마4:1-11, 눅 4:1-3)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인 ‘돌들을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40일간의 육체적인 배고픔의 고통을 당한 후에도 신명기 8:3벌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였으되’라고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 4:40)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육체의 약함을 스스로 체휼하신 분이시다. 40일간의 굶주림을 통하여 그러한 육신의 배고픔에서도 분명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또한 두 번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강화에서도 예수는 이미 모세의 구약율법에 이미 통달하셨으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신다. 누가복음 2장에서 12세의 소년예수는 성전의 선생들과 토론을 할 정도의 놀라운 성서적 능력을 소유한 범상한 분으로 인식되었다. (눅 2:40-52) 또한 예수는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눅4:16)다라서 예수께서는 유년시절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받으시고 말씀을 완성하셨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서 제일 먼저 수행한 일은 구약의 율법을 재천명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정도는 사실이나 예수께

서는 도덕을 재무장시키고 무너진 율법의 질서를 세우는 일부터 착수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더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시작하신 것이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고난 중에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차츰 사라지고 있을 때 그는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직접 물어보게 하셨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인 답변을 하신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임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2-5)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이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당하는 자, 죄 지은 자, 문제 있는 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로고서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요 어두움의 세상을 비치는 빛이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언한다. 로고스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온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경은 고침을 받고 빛을 얻었다. (요9:1-7) 여리고 성문에 앉았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막 10:46-52) 인격적인 말씀은 만나는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새 빛과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죽어 장사지내려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새 인생을 시작했다. (눅 17:11-21)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이다. 로고스가 썩어가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 날 것이다. 죽음의 사막. 거친 광야에 로고스가 머물면 그 곳은 생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초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분은 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머무는 곳에 죄인이 거룩한 자로 변화되며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으며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게 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이 되시며 말씀을 완성하시며 행동하며 새롭게 하며 고치시는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말씀이며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빛의 말씀이시며 고난의 자리를 향 하여 가는 말씀이며 앎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씀이며 앎을 행동으로 비우는 (empty) 말씀이며 이웃과 함께하는 말씀이며 결핍을 채우며 회복하시는 말씀이시다.

### 3. 교제 (나눔)훈련

#### (1)예수님의 명령으로서의 성도의 교제

예수님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두 세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 자동적으로 현존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

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8-20)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 가는 동안에 두 세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장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행1:12-14)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도행전 2장은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로 시작된다.

바로 이러한 합심기도가 성령 충만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사도행전 2:1-4까지에 보여주는 오순절 성령강림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1:4-5, 눅 24:49)소수의 무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대사건 이었다. 이사건 속에서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한다. (행4:24-31, 행10:4, 행19:5-6) 성령강림의 결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힘을 다하여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다”고 선포하며 전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요16:14)라고 말씀하신대로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입과 몸을 사용하니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성령강림의 두 번째 결과는 나눔과 돌봄의 성도의 교제이다. 사도행전 2:42-47까지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특성은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요, 그것은 성령강림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저희가 다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행 2:42), 함께 모여 기도예 전혀 힘쓰며 (행 2:42) 성도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며 (행 2:44-45)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행2:46)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행2:47)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성령강림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금하고 결혼도 금하였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인종과 민족의 성의 장벽을 몸소 허무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 B.C 722년 앗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앗수르의 이민정책에 의하여 그들과 혼인하여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

순수한 이스라엘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불결하게 생각하여 상종을 금하여 왔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골짜기의 먼 길을 택하고 있었다.

종교적 관행도 다르고(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림), 민족적인 순수성도 상실하고 성경도 다른(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중시함)이단적인 사마리아를 지나거나 그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더러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셨다.(요 4:3-4) 예수님은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지방으로 오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문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다. 예수께서는 상식의 장벽과 관행의 장벽과 지역적인 장벽과 성의 장벽을 허무셨다. 예수의 일생은 막힌 담을 허시는 삶의 연속이었다. 예수께서는 교제가 금지된 사람들과 만나시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

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깨뜨리시며 저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다.<sup>63)</sup>

또한 예수께서는 70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각종 각처로 둘씩 짝을 지워 보내셨으며(눅10:1)예수의 사역의 대부분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하며, 성도의 교제는 우리 주님의 임재의 장이요 역사의 장임을 믿는다.<sup>64)</sup>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명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과 틀과 제한을 설정하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분이라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새 계명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모세의 옛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됨의 기본적인 틀과 인간됨의 제한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새 계명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들으며 내가 너를 사랑함과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 “서로 사랑”을 명령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사랑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가르치며 내가 너를 사랑함과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사랑을 가르친다.

## (2) 성도 교제의 원리

그러면 이 계명이 명하는 성도의 교제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첫째

---

63) 오성춘, 「사마리아에 오신 그리스도」, p155-156, 월간목회, 1998. 2

64)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pp216-7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 들였고 지금도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아 들이고 있는 성도들이 시작하는 교제를 의미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이요 기준이다.

그분의 사랑과 구속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사랑과 구속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사랑과 구속과 은혜를 “너”에게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출발이며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그 감격과 기쁨과 체험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마침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나”와 “너”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로 네가 받은 것은 나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곧 성도의 교제의 기본적인 역동성이다.

바울은 이러한 근본원리를 간명하게 권면의 말로 전달한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골3:13) 주께서 나의 죄를 씻으신 구속의 체험은 나의 형제자매 들을 향한 용서와 용납으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기본적인 성도들의 교제의 삶의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나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3) 예 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신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에배 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 4:23)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와서 은혜와 권능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이 그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 응답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세상에 내려와 그들을 원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을 찾아와서 그 고통 중에서 인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5)</sup> 예수님께서서는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여인의 모든 죄와 한을 씻어 주셨다. 여인 속에 감추어진 절망과 함께 저주와 고통, 수치와 죄책, 한과 영혼의 상처 등을 예수께 내어놓고 용서와 용납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위엄을 회복 받았다. 이 때에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4:20) 여기에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의 예배는 어떤 장소가 극히 중요하였다. 모리아산, 호렘산, 시온산, 성막, 성전 등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예배는 일정한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열렸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2;19-21)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

65) 오성춘, 「목회와 영성」, p264., 장신대 출판부, 1995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1:51)고 말씀하셨다. 이 말 씬은 베엘에서 야곱의 꿈을 연상하는 말  
씀이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로요 사라리가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과 신비를 기록하는 데에 충실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는 통로이다.<sup>66)</sup>

그러므로 예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과 만나는 자  
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결한 사람이 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마1:23)은 그를 믿는 자들과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지 예수님 이름으로 드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장소에 제약을  
받는 예배가 아닌 성령 안에서 진리와 함께 드러야한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위하는 삶만이 진정한 인간의 길  
임을 선언한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6-8) 이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삶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요 성령 안에 진리의 삶이 있으며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참 뜻을 맛보기 시작한다.<sup>67)</sup>

---

66) 오성춘, 「멍든 가슴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pp 128-130., 월간목회, 98.4

67)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p253., 성지출판사, 1992

#### (4) 참여 봉사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나시는 장소는 첫째로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의 시간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은 성도의 교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 하셔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은 공동훈련으로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 드리는 곳에 현존하며 그곳에 모인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네 번째 장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필요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봉사하며 도우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애쓰는 “참여와 봉사의 삶”이다. 방어할 힘이 없고 짓밟히는 이웃을 향한 자비는 초대 교회 못지않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중요한 구성요소로 남아있다.<sup>68)</sup>

#### V. 결 론

본 연구는 영성의 전반적인 개념 가운데서 기독교 영성의 제 정의를 논하였으며 초대교회 예수의 승천이후 성령의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한 역사적 체험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였으며, 초대교회의 또

다른 영성의 특징은 성례전 중심의 예배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 경험을 기초로 삶으로의 통합되는 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공통점은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의 공생애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과정이 개혁신앙의 마지막 귀결임을 밝히고자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은 교리이전에 생명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 신앙은 하나님과의 새롭고 신비적인 인격적 관계로의 나아감이라고 말할

68)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p253, 성지출판사, 1992.



수 있다. 그것은 예수의 사상이었고 바울의 사상이며 루터와 칼빈의 영성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러한 모든 근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었다. 교파 절대적인 수구적 사고방식으로는 타 교파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으며 배타적인 수구 세력만을 구축할 뿐이다. 그러한 사실에 직면할 때 그 자체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성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참다운 영성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을 무시하고, 전통을 도외시한 체 신비주의적인 경험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참다운 영성은 하나님과의 성서에 근거한 만남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다. 예수의 전통에 따르면, 영성적인 노력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변화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의 모형을 따라 변화시켜 가는 일련의 성화되는 과정이다. 영성의 최종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성취함으로써,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외면적으로 예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는 데는 인간적인 자아의지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한다.(눅 11:13). 참다운 영성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영성적인 노력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만이 온전한 기쁨을 가진 성령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영성적 삶을 실천하셨으며, 또 그러한 영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께서는 영성의 대가이자 모델로 중심에 서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서서 완전한 영성의 삶을 사셨다는 점에서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예수의 영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물질

숭배하는 맘모니즘에 빠져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리도교회적인 열광적인 영성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도피주적, 초월주의적 영성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초월주의적 영성과, 전투적인 성향의 해방의 영성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종말론적 영성도 있다. 이러한 제반의 양상들은 예수의 공생에 기간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 속에서 예수께서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영성은 참다운 영성의 모범이며, 오늘 우리의 개혁영성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올바른 길잡이다.

## VI. 참고문헌

### 1. 외국서적

조나단 에드워드. 『Thought on the Revial in New England,1744』  
New York:Runing & Spaulding, 1832

Frank Lsubach . 『 Channel of Spritual Power 』 Westwood, N. J:  
Fleming H.Revell, 1954

Emil Herman 『The Meaning and Value of Mysticism』 New York:  
George H.Doran, 1925

Richard Baxter 『The Reformed Paster』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60

### 2. 번역서

헨리나우웬. 『영적발돋움』 이상미 역 서울:두란노, 1998

Donald G. Bloesh. 『기도의 신학』 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  
사, 1996.

Howard L. Rice.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K. Rahner. 『영성신학총론』 정대식역 서울:카톨릭출판사, 1993

Lewis Sperr Chafer. 『신령한 사람』 최지남 역 서울:생명의 말씀  
사,1985

칼 수수 프랑크.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최형걸 역. 은성출판사.1997

P.Tillich.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3

R. E. Scribner. 『독일종교개혁』 임도건 역. 서울:은성출판사. 1996

칼빈 『기독교 강요』 3권.1.1

### 3. 국내서적

-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 오성춘. 『영성과 목회, 기독교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 장로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이영두. 『영성신학』 서울:도서출판 임마누엘, 2001
- 이광희. 『영성신학,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도서출판 세복, 1993.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협성신학연구소편. 『기독교신학과 영성』 서울:솔로몬출판사, 1995
- 박재만. 『교회 생활안에서 영성사의 역할』 서울:카톨릭대학신학부.1987
- 오성춘. 『영성과 목회』 장신대출판부, 1989
- 이형기. 『세계교회사(상)』 한국장로교출판부. 1984
- 방효익. 『영성사』 바오르 딸. 1995
- 엄두섭. 『수도생활의 향기』 서울:보이스사.1982

### 4. 논문

- 한국기독교학회 편. 『오늘의 영성신학』 신앙과 신학 제4권 서울: 양서각.1988
- 유해룡. 『기독교 영성의 뿌리』 교육목회.1993년 10월호.